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2월(제88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홍콩에서 만나는 오이타의 음식과 술!

## 2023 오이타 페어 in 홍콩 오이타현



홍콩에서 오이타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오이타 페어 in 홍콩’이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약 한 달간 홍콩 ‘벳푸면관’에서 열렸습니다. 벳푸 지옥을 모티브로 라멘을 만들어 판매하는 벳푸면관에서는 이번 행사 동안 오이타 와규(소고기), 가보스(감귤류 과일), 방어, 히타 배 등을 사용한 특별 메뉴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홍콩에 계신 분들께 오이타의 신선한 식재료와 전통 요리, 그리고 매력을 전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루이와이쿵(呂惠光) 오이타현 해외 친선 대사가 운영하는 회사 ‘벳푸집단(別府集團)’과 오이타현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 오이타현 소식

지난달 오이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 호버크라프트 제2호선, 국토교통성 검사 합격
- 오이타-서울 직항편, 내달 12일부터 주 5회 운항
- 오이타교통, 이달 12일부터 공항 특급 버스 요금 인상
- 우사 신궁, 높이 11m 대형 도리이 완성...새로운 상징물로
- 아프리카 사파리, 새끼 사자 ‘간타’ 탄생...25일 공개
- 오이타현, 청년 이주자 생활·커리어 형성 지원
- 오이타국제 활체어마라톤, 4년만에참가선수퍼레이드개최
- 벳푸시서 드론 및 자율 주행 로봇 신문 배달 실험 진행

다케타, 독일의 자매 도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 바트 크로칭엔시 예방 다케타시



다케타시는 1989년 11월 23일에 옛 나오이리마치(直入町)의 이와야 만이치 전 정장(町長)이 탄산 온천 활용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계기로 독일의 바트 크로칭엔시와 자매 도시 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로 행정·시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3일~20일 일주일간 도이 마사히로 다케타시장, 사토 미키 다케타시장, 시가 데쓰야 교육장을 비롯한 방문단 11명이 바트 크로칭엔시를 직접 방문해 교류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범세계적 유행으로 교류를 자제해 왔으나, 지난해 말부터 해외 출입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키버 바트 크로칭엔시장이 ‘빛 축제’에 방문단을 초대하며 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빛 축제에는 다케타 대나무 등불 축제 ‘지쿠라쿠(竹楽)’의 훈연 대나무도 사용됨)


이번 방문에서는 홈스테이를 통해 일반 시민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고, 나가유 온천 요양 문화관 ‘고젠유(御前湯)’와 자매 온천 시설 결연을 맺은 ‘비타클라시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탄산 온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키버 시장은 ‘이렇게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대면 교류가 가능해진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교류를 돈독히 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내년에는 독일 방문단이 다케타시를 방문할 예정인 만큼 향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2월(제88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건강하게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명승지의 가을  
 **메이플 야바케이 사이클링 로드** 나카쓰시

‘나카쓰’하면 ‘야바케이’, ‘야바케이’하면 ‘단풍’을 떠올릴 정도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나카쓰를 찾는다. 일본 국가 명승지이자 일본 유산으로 지정된 기암 계곡 야바케이의 단풍을 보러 갈 때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곤 하지만, 실은 그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바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카쓰시에서는 야바케이 철도가 달리던 길을 활용하여 가족은 물론 자전거 초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메이플 야바케이 사이클링 로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나 역시 ‘왓츠업, 오이타!’의 일본어 기사 번역을 하며 사이클링 로드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자전거를 타지 못하기에 이용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일을 하는 중국 교류원이 자전거 대여소에 문의를 한 결과 일반 자전거는 물론, 전동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함께 취재를 가자며 제안해 주었고, 덕분에 드디어 야바케이의 단풍을 취재하러 다녀올 수 있었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기초 체력이 전혀 없는 나지만, 이번 취재를 위해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으며 나카쓰·메이플 야바케이 사이클링 로드에 관한 정보를 취재했고, 형형색색 물든 단풍길(메이플 로드)의 사진도 찍어 왔으니 이 기사를 보고 궁금하다면 돌아오는 계절에 이용해 보길 바란다.

‘메이플 야바케이 사이클링 로드’는 ‘나카쓰 역’을 출발하여 ‘구 모리자네 온천 역’까지 9개의 주요 장소를 거치는 총 주행 거리 36km(예상 소요 시간: 3시간 40분)의 자전거 도로이다. 물론 이 거리를 모두 달려야 하는 건 아니며, 자전거 대여소 등에서 무료 배부 중인 안내 책자에서 추천하는 3가지 코스(패밀리·레저, 비기너, 마스터)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즐기거나 자유롭게 원하는 루트를 달리면 된다. 난 이번에 ‘아오노도몬 동굴’ 근처



야바케이 교슈호(競秀峰) 봉우리



제2 야마쿠니가와(山国川) 강 철교



오야시키 절경(大屋敷の景) 안내판



야바케이 사이클링 터미널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2월(제88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의 '사이클링 센터 후스이엔'에서 자전거를 대여한 후, '히라타 역참', '제2 야마쿠니가와 강 철교'를 지나 '야바케이 사이클링 터미널'에서 반납하며 약 11km 정도를 주행했다. 개인적인 감상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자전거를 못 타는 나로서는 사이클링을 자주 할 수 없기에 이번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특히 취재를 간 날은 날씨도 너무 좋아 푸른 하늘 아래에서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멈추고 울긋불긋한 단풍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물론 (2인용 자전거를 이용하긴 했지만) 이러한 장거리 주행은 처음이었기에 마냥 신나기만 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자전거에서 내려 후들거리는 다리를 쉬어 주기도 했다. 자전거를 반납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사이클링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게이세키엔 정원'을 둘러 정원과 조화를 이루는 단풍을 구경하며 사이클링을 마무리했다. 건강하게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던 특별한 추억이 되었으므로 여러분도 꼭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메이플 야바케이 사이클링 로드



게이세키엔(溪石園) 정원

## 자전거 대여소 안내 レンタルサイクル施設の案内 🍁

※대여 요금은 시설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반드시 각 시설에 문의 요망!

- ① 야바케이 사이클링 터미널 耶馬溪サイクリングターミナル
  - 주소: 中津市耶馬溪町大字柿坂353番地
  - 전화번호: 0979-54-2700(일본어 대응)
  - 매주 수요일 휴무(※12~2월: 매주 화, 수 휴무)
- ② 야스라기노 사토 야마쿠니 やすらぎの郷やまくに
  - 주소: 中津市山国町藤野木12-1
  - 전화번호: 0979-62-2186(일본어 대응)
  -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 휴무
- ③ 사이클링 센터 후스이엔 サイクリングセンター風水園
  - 주소: 中津市本耶馬溪町曾木1702-1
  - 전화번호: 0979-52-2108(일본어 대응)
  - 부정기 휴무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12월(제88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33화

몇년 전, 일본인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차를 받은 적이 있다.



타는 차 선물로 주는 친구있으면... (웃)

평소에 차를 마실 일이 없다보니  
오랜만에 마시는 차가 정말 맛있었는데



어떤 가게의 차일까 궁금해 찾아보니  
'루X시아'라는 차브랜드 제품인 걸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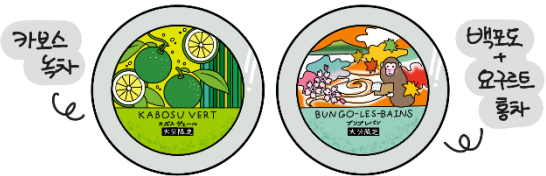
꽤 해당 브랜드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받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소개하는 거임;;



수백가지 이상의 차를 소개하는 공홈에서  
'지역 한정 차'라는 독특한 상품을 발견했고



그 길로 나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만든 차를  
지역 한정 라벨 디자인의 틴 케이스에  
담아 파는 한정 상품을 모으는 취미가 생겼다.



여행을 하며 구매한 지역 한정 차를  
집에 돌아와 마시면 당시의 추억이 떠오르고  
틴 케이스도 예뻐서 장식할 수 있어 좋는데



그렇게 모으다보면 눈 깜짝할 새에  
집에 차가 넘쳐나 열심히 마시게 되더니  
차를 좋아한다면 도전해 보되 조심하길^^



여  
지금도 일본 지도  
모양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규슈는  
거의 완성되어  
간답니다 ㅎㅎ